



中, 플라스틱 골판지상자 시장 형성 대부분 절감성, 광동성에 소재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는 사용 용도가 매우 넓은 제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운반용 포장박스에서부터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전자나 기계부품 등 산업용 부품의 운반에도 널리 사용되는 포장제품이다.

이 뿐만 아니라 농약, 식품, 가전제품, 화공약품 등의 포장에도 최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골판지 상자와는 달리 중량이 가볍고 방습성이 있는데다 밀폐율이 좋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화공부 농약시는 제조되는 모든 농약포장이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로 포장돼야 한

다는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사용 증가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이 지난 20여년 전부터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를 제작해 오고 있지만 가격이 일반 골판지 상자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사용 자체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5~6년 전부터 제품 포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제품 안전운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에 대한 수요도 매년 평균 5%씩 증대되어 왔다.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최고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부터 뚜렷한 분기점을 이루면서 증가하는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 수요에 맞추어 중국의 생산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30개사가 넘었고, 이중 10개사는 대단

위의 생산이 가능한 규모 있는 업체들이다.

대부분 절강성과 광둥성에 소재하고 규모는 작지만 산동성에도 5~6개사 정도 있다.

산동성 업체들은 대부분 하이얼, 오크마, 하이신 계열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3개 그룹은 모두 계열사로 식품, 가전, 운송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량이 매우 크다.

수입제품은 아직 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중국 시장에서 일반 골판지 상자 생산량이 3백30만톤인데 비해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의 생산량은 2만톤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불균등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만큼 시장진출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日, 야채 원산지표시 우수점포 지정 표시 모델 점포 표지판 부착

일본 식품 유통 구조개선 촉진기구는 야채류의 원료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체 77개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우수점포에는 이와테, 고후 및 오이타의 생활협동조합 점포와 오사카소재 식품슈퍼 라이프 코퍼레이션 등 전국의 식품관련 슈퍼나 생활협동조합이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우수점포에는 '야채원산지 표시 모델점포'라는 표시판이 부착되는데 식품유통 개선기

구는 이를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국산 야채의 소비촉진에 적극 연결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 기구가 실시한 앙케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의 7할 이상이 50개 이상의 야채류와 이를 사용한 부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품목수는 5~10개 이하라고 응답한 점포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표기정도가 낮게 나타난데 대해 이 기구의 관계자는 "여러가지 다른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식품자재의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요인 뿐 아니라 원산지표기에 대한 의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정도는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점포측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상품 설명이 더 쉽다(26%), 매상이 증가(22%), 손님이 증가한다(12%) 등 전체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향후 원료표시 점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日, 식품기한 표시 '양미기안' 통일 식품위생분과위원회 상정 후 법안 개정 발의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위생 심의회 표시 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과 JAS법에 식품



의 품질기한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사용돼 왔던 점과 관련, JAS법 상의 '상미기한(賞味期限)'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후생성과 농수산성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에서 식품위생법상의 '품질보관 유지기한' 기준과 JAS법상의 '상미기간'으로 이원화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일하기 위한 내부검토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후생노동성으로서 농수산성이 주무부서인 JAS법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 5일이 지나서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상미기간'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 식품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과 농수산성은 이달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또 한번 거친 이후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 우선 상정하여 법안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이 같은 통일기준이 적용될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현행 2원화 표시체계를 앞으로 2년 동안은 경과기관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통일기준 의무화시기는 2년 이후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상미기한'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점은 많은 국민들이 품질보관 기한이 유통이나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상미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에 대해 더 높은 지지도를 보여준

예비조사 결과를 감안하는 한편,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도 이 표시기준이 더 많은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日, 아라이와 이와타니산업 제휴 레이저마킹장치 시장 2백억엔 규모

측량 회사인 아라이(후쿠시마현 소재)는 제품의 식별 데이터를 새기는 미세 레이저 마킹 장치의 판매로 이와타니산업(岩谷産業)과 제휴했다.

이와타니 산업의 판로를 이용, Traceability(생산 이력의 추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메이커 등에 판다.

2백억엔 규모인 레이저 마킹 장치 시장에서 점유율 5%를 목표로 한다.

이와타니 산업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1백 마이크로(마이크로는 백만 분의1) 미터 면적에, 10자리수의 문자 정보를 표시하는 「이차원 코드」를 새길 수 있는 「보릭스 마이크로 레이저 마커 시스템」이다.

2002년 6월에 아라이가 독자 개발했다. 타사의 레이저 마킹 장치와 비교하여 같은 정보량을 보다 좁은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가격은 약 9백80만엔이다.

반도체 메이커 등은 제품의 불량품 검사 등을 위해, 제조년월일이나 제조공장 등의 정보를 제품에 마킹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소형화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라이는 미세 마킹 장치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를 판매하는 이와타니 산업과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한다.

시장이 급확대하고 있는 액정 등의 플랫·패널·디스플레이(FPD)의 전자 부품용 등, 반도체 관련 이외의 전자 부품용에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2내년 3월에 미세 마킹 장치의 매출을 약 10억엔으로 전망한다.

日, 음료캔 알루미늄과 철 분리 제강용 자재로 재활용 가능

쿠리모토 철강소와 자회사의 쿠리모토 엔바이로, 철원료 전문 상사의 메츠 코퍼레이션의 3사는, 사용이 끝난 음료캔으로부터 알루미늄과 철을 높은 효율로 분리 회수하는 기술의 실용화에 성공했다.

알루미늄과 철의 용점의 차이를 이용해 음료캔 뚜껑의 알루미늄과 몸체의 철을 분리, 각각을 제강용 자재로서 리사이클 할 수 있다.

쿠리모토 철강소는 동기술을 사용한 플랜트의 판매를 시작했다.

연간 10억엔에서 15억엔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 또, 쿠리모토 엔바이로는 음료캔의 분리 회수 사업을 금년 7월에 시작해, 초년도 10억엔의 매상을 목표로 한다.

분리 회수는, 프레스 된 스틸 음료캔을 파쇄

한 후, 무산소 용해 분리기에 투입해 약 7백℃로 가열해 알루미늄만을 용해해 철과 분리 회수한다.

3사는 알루미늄의 용점(6백59℃)과 철의 용점(1천5백37℃)의 온도차를 이용했다. 알루미늄과 스틸의 혼합 프레스 제품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수된 알루미늄은 불순물이 지극히 적고 양질인 제강용 탈산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철도 원래 고순도강철이므로 제강용 냉각재나 강구 주물 원료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플랜트 가격은 처리 능력에 따라 5억~수십 억엔 정도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분리 회수 사업을 개시하는 쿠리모토 엔바이로는, 약 9억엔을 투자해 본사 부지 내에 공장을 건설중이다. 1일당 1백톤의 음료캔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예정으로, 음료캔의 집하와 리사이클 제품의 판매는 메츠 코퍼레이션이 담당한다.

日, 식품업계, 물류비용 축소 대응 재고수준 축소 당면과제로 드러나

일본의 식품유통 가공업체들이 경기침체와 디플레로 인한 수익감소에 따라 물류비용 등 코스트 삭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식품업계가 밝혔다.

농수산성이 금년 1, 2월중 전국의 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1천75개사의 유효응답을 토대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류 비용의 삭감에 적



극 나서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40%,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운송 트럭의 효율적인 이용, 재고의 삭감, 판매용기의 재사용 등 다양한 코스트 절감방안을 강구하거나 활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50%가 수송분야에서 타 품목과 함께 트럭에 탑재하는 등 트럭활용의 효율화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외부 위탁이 40%, 타사와의 공동 대응이 30%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고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80%가 “필요시에 적정량을 구매해 재고 수준을 낮춘다”는 응답을 보여 재소수준 축소가 대부분의 업체에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30%의 응답을 보인 ‘설치·운용 비용이 낮은 보관 설비 도입’과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을 웃돌았다.

또 식품 유통시의 가공·포장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사이클 가능 용기 등의 이용’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장의 간소화’와 ‘골판지상자 등 단순포장’도 각각 30%로 나타났다.

中, 폴리우레탄 반덤핑 공청회 개최 반덤핑 및 폴리우레탄 제조업체 참석

중국 폴리우레탄협회가 지난해부터 반덤핑협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산

TDI와 일본, 한국산 MDI에 대해 자국내 산업 피해상황 및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달 상해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Yantai Wangua, Cangzhou Petorchem, Yin Guang Corp 등 반덤핑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폴리우레탄 제조업체들도 다수 참석했다.

TDI의 경우 작년 5월부터 중국 대외경제무역 협력부가(MOFTEC)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 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MDI는 지난 9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아, 멕시코산 PVC에 수입관세 부과 미국산 40.29% 차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내 PVC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지난 달 21일부터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Plattls가 보도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입관세는 미국산이 40.29%이고 멕시코 Primex사와 Policyd의 PVC에 대한 수입관세는 각각 7.47%와 13.92%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북미산 PVC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가키로함에 따라 향후 북미 PVC업체들의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약 이들업체들이 대체시장으로 아시아지역 판매를 늘일 경우 동북아 PVC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o]